



올리버 비어의 국내 첫 개인전 <공명-두개의 음(Resonance Paintings-Two Notes)>이 열리는 타데우스 로팍 서울에는 푸른 회화가 벽면 가득 걸려 있다. 추상화가 떠오르지만 실제로는 안료 파우더를 소리 진동으로 고정된 '공명 회화(Resonance Paintings)'다. 중앙에 매달린 푸른 문양의 도자기를 지나자 소리가 울려 퍼진다. 움직일 때마다 연주하듯 흘러나오는데 이는 조각-사운드 설치 작품 '공명 관(Resonance Vessels)'이다. 안쪽에서 감상할 수 있는 2차원 조각이라고 일컫는 '재구성(Recomposition)' 연작은 마치 앞서 본 작품의 순간이 멈춘 듯 보인다. 시각과 청각, 사진, 조각 등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의 작업은 우리의 감각을 확장하며 일면 해방감을 선사한다. 서면 인터뷰를 통해 만난 그에게 예술의 의미를 묻자, '모든 것(Everything)'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음악을 시각화하는 작업을 주로 하고 있다. 어릴 때부터 주변 소리와 그들이 만들어내는 화성(Harmony)에 예민하게 귀를 기울였다. 작곡과 순수 미술을 전공한 이유이기도 하다. 대학에서 영화 이론을 공부하던 시절 미셸 시옹(Michel Chion)교수가 제시한 감각 이론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그는 영화에서 소리와 이미지의 결합으로 생겨나는 감각적 경험을 '오디오비전(Audiovision)'이라고 말했다. 작업을 할 때면 어떤 시절로 돌아가 사물이나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란다. 교육으로 경험한 시각을 잊고, '새롭게(다시) 보고' 또 '새롭게(다시) 듣기'를 시작하는 거다! 동시에 문화는 시각적인 것을 우선순위로 인식하도록 한다. 하지만 우리 인식 체계를 재설정하고, 시각적 경험과 청각적 경험을 융합해보면 스스로에 대해, 세상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사회에서 청각적인 부분이 중요했다. **공명 회화는 어떤 마음일 때 진동을 멈춰 작품으로 탄생되나.** 그 마법 같은 순간을 말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QR 코드를 통해 작업 과정을 담은 비디오를 보셨으면 한다. 수평으로 배치한 캔버스 위에 미세한 가루 형태의 안료를 뿌린 뒤, 그 아래 스피커를 두어 제작한다. 소리는 캔버스 위의 공기를 움직이고, 공기는

between form and harmony

영국 현대미술가
올리버 비어
(*Oliver Beer*)는
소리로
회화를 '작곡'한다.
공명이
공감을 부른다.



QR 코드를 스캔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시 안료를 움직인다. 흩뿌려진 안료는 소리를 통해 캔버스 위를 자유롭게 부유하는데, 말 그대로 '소리를 붓으로' 사용한다. 음악적 화성이 자아내는 기하학적 문양이 캔버스 위에 선명히 드러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아주 매력적이다. 다양한 음으로 작업을 해보는데 청각적 이미지가 완벽하게 구현되었다고 느낄 때, 소리 재산을 멈추고 안료를 고정한다. 더 다양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음을 조합하거나 수정해서 층층이 쌓기도 하므로 즉흥 재즈 연주와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다. 내가 만들어내는 명확한 구조가 있지만, 그 안에는 리듬과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놀라움도 있다.

수년 동안 얼핏 회화처럼 보이는 '2차원 조각'을 만들어왔다.
이번 서울 전시에서 처음으로 마치 사진처럼 보이는 듯한 '재구성'을 선보인다. 투명한 레진 곳곳에 검은색 안료를 넣는 방식으로 제작한 이들 작품은 특유의 깊이감을 부여하지만 평면으로 보이는 듯한 착시도 만들어낸다. 그래서 사진과 스캔, 회화와 조각, 심지어 홀로그램의 경계선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제작 방식을 알아도 무엇인지 규정하기 쉽지 않다. 구별과 경계에 대한 아이디어는 우리가 세상을 보고 듣는 방식을 향한 도전으로 다가온다. 작품 요소는 평소와 공명하던 오브제나 악기일 때도 있고, 삶에서 수집해온 것들이기도 하다.
대면 시대로 회복해가는 요즘, 퍼포먼스 '입을 위한 작곡'이 갖는 의미는. 이 작품은 공연자의 신체를 청각적 공간으로 변형시킨다. 두 공연자는 서로의 입술을 단단히 맞대 하나의 관을 만들고 이들은 서로의 얼굴에서 울리는 공명 주파수를 탐색한다. 두 목소리가 만나는 지점에서 '제3의 목소리'가 생긴다. 악보 자체가 공연자의 어린 시절, 최초의 기억에 기반하기 때문에 매번 새로운 사람과 공연할 때마다 완전히 다른 공연을 선보이게 된다. **건물, 사람의 몸, 도자기 등을 악기로 활용한 작업을 선보여왔다.** 그 대상은 계속 확장될까. 코로나 기간 동안 지닌 10년간 스케치한 것들을 살펴봤다. 향후 10년은 이 계획을 실현하느라 바쁘게 보낼 듯하다. 나는 언제나 실험 중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영화를 비롯해 조각이나 건축을 제작 프로젝트도 많이 진행한다. 반신욕을 하거나 전화를 만들 수 없을 때, 생각하거나 노래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요즘 머릿속을 채운 것에 대해 말해준다면.** 음악과 소리를 활용해 문화적 차이를 이어주는 방식에 몰두하고 있다. 다시 공연을 하고 전시를 할 수 있게 된 지금, 사람들을 한데 묶을 수 있는 강력한 경험을 만들고 싶다. 예를 들어 벽화가 그려진 남프랑스의 구석기 시대 동굴에서 대규모 공연과 비디오 작업을 계획 중이다. 동굴 또한 하나의 공명관처럼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역사를 공유하는 이 장소에 각기 다른 음악적 전통과 배경을 지닌 여러 공연자를 초대함으로써 새로운 예술 형태가 만들어질 것이다.